

화두로 떠오른 식품안전문제

말레이시아사무소

말레이시아를 위협하는 식품안전

- 말레이시아는 현재 불량위스키와 맥주유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메탄올이 과량 함유된 위스키와 맥주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9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쿠알라룸푸르와 슬랑오르주, 페락주에서 37명의 사망자와 8명의 위급환자를 비롯한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미얀마와 네팔, 방글라데시 등 주변국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들로 이들은 주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등에서 주류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불량위스키와 맥주를 불법판매해온 상점들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당제품들을 팔고 있어, 빈곤층 외국노동자들의 이용을 부추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제품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 말레이시아 범죄예방단체(MCPF)는 각종 식품안전문제 관련법과 정책을 강화하고 범죄자들의 처벌수위를 높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말레이시아정부 역시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테로이드주스 파동으로 실추된 정부체면

- 한편,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최근 유령회사 Jus Al Sunnah by Sri Saga Marketing가 제조한 3가지 주스의 판매를 전면중단했다. 해당 주스들은 공식적인 할랄인증*까지 받은 채 유통되었지만 '1983식품법(Food Act 1983)'의 13항에 금지물질로 지정된 dexamethasone과 prednisolone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제재를 받았다.

*** 할랄인증** :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마크.

- 폐낭주 소비자연합(CAP)은, 지난 6월 한차례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으며, 해당 스테로이드성분이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에서는 각각 2017년과 2018년 6월에 판매 중단되었음에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데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 무슬림 소비자들 역시 자킴(JAKIM)**인증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보전부는 관련법상 제품에 들어간 식품보충제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검사과정이 생략되었으며 별도의 검사와 인증 없이 일반식품으로 판매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킴(JAKIM) :** 말레이시아의 할랄인증기관. 말레이시아 표준법을 기준으로 하여 제품의 생산, 취급, 보관 등을 다루는 종합 가이드라인인 Malaysia Standard(MS)를 근거로 이 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한다.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

- 식품안전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는 말레이시아에서 정부가 변화를 쉽게 이끌어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위생관련조사 및 식품유통시스템 개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품안전문제에 비상등이 켜지고 소비자와 유관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며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관련정책과 법규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014년 가축사료의 항생제 함유로 인한 인간 내성 박테리아 감염우려 연구가 발표되자, 미국 칙필레이社は ‘향후 5년 안에 항생제먹인 닭을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의사를 패스트푸드업체 최초로 발표한 결과, KFC의 3배를 능가하는 매출기록을 선보이며 지금까지 소비자의 강한 신뢰를 얻고 있다.
- 말레이시아에 이미 진출해있거나 향후 진출을 모색 중인 한국기업들 역시 이와 같은 발빠른 대응과 함께 제품 원료선정부터 가공과 유통 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말레이시아 소비자의 신뢰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가
전면 중단된 업체의
3가지 주스

